수능 D-7…유통가 수능 마케팅 '후끈'

농협, 합격기원 황금란·황금사과 판매…패션업계도 이벤트
떡·제과업체 복고 열풍에 찹쌀떡·초콜릿 응원 상품 출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4일)을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인 수험생 선물인 떡·제과업체는 등은 '복고 열풍'에 힘입어 상품을 내놓았고, 각 기업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세웠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험생을 겨냥한 간식·학용품·건강식품 업체는 관련 상품을 할인 가격에 내놓고 있다.

롯데마트 상무점은 13일까지 '락앤락' 보온제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이 도시락을 가져간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것이 마트 측 설명이다. 이 매장은 밥통과 반찬통 2개·젓가락·가방으로 구성된 세트상품과 죽통(1ℓ) 등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뉴트라라이프'는 창립 30주년과 맞물려 주요 건강 관련 상품을 7일까지 30~70% 할인 판매한다. 비타민C1000(90정)와 오메가3 1100(60정), 프리미엄종합비타민&미네랄(90정)을 1만원에 내놓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1' 혜택을 적용한다.

농협유통은 합격을 기원하는 '황금란'(10구·1만원)와 '황금 사과'(황옥 품종 3㎏·1만6000원)를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기존 달걀, 사과와 달리 황금빛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항공은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해준다. 탑승일 기준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광주~제주 노선을 포함해 전국 6개 국내선을 본인 기준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후 각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쿠팡도 수험생을 위한 준비물과 간식 등 600여 개 상품을 모은 '2019 수능 페어'를 열었다.

보온도시락, 죽통, 보온병, 텀블러 등 수능 당일에 필요한 식기와 엿·초콜릿·사탕·쿠키 등 선물용 간식 등이 마련됐다.

6일 롯데마트 상무점 직원들이 수능을 일주일여 앞두고 30% 할인행사를 벌이는 '락앤락' 보온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패션업계도 수능 응원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스포츠 브랜드 밀레는 24일까지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신상품 다운재킷을 30~40% 할인하는 '수능 응원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에 본사를 둔 창억떡집은 찹쌀떡, 구름떡 등을 한데 모은 '대박' 세트를 1만~2만원 대에 내놓았다. 파리바게뜨는 '뉴트로'(New+Retro) 테마를 차용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수능 선물 20여 종을 내놓았고 뚜레쥬르는 수능 세대에 해당하는 'Z세대' 감성에 걸맞는 디자인의 엿, 초콜릿,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0년전 가격 보다 싸게"

롯데, 한우·삼겹살 등 18개 품목
이마트, 할인에 상품권 증정도

쇼핑 대목을 선점하기 위한 대형 마트의 '할인 경쟁'은 11월에도 계속된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10년 전 보다 싼 가격'을 저마다 앞세우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돼지고기 790원=광주지역 4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27일까지 '국민 체감 물가 낮추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들 매장은 7일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00g을 790원(100g)에 판매한다. 6일까지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을 10년 전(1250원) 보다 저렴한990원에 선보였다.

롯데그룹 유통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롯데 블랙 페스타'(11월1~7일) 기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총 6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준비돼있다.

롯데마트는 우선 한우 등심과 삼겹살, 갈치 등 고객이 많이 소비하는 18개 품목을 선정해 10년 전 가격에 선보인다.

10년 전인 2009년 11월 첫째 주에 해당 상품들이 롯데마트에서 판매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행사 가격을 책정했다.

대표적으로 1등급 한우 등심 100g은 10년 전 7880원에 판매됐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30% 낮은 5260원에 선보인다. 제주 은갈치는 10년 전 가격과 동일하게 1마리에 2480원에 내놓는다.

또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손잡고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민 체감 물가 낮추기 프로젝트는 주 단위로 4차에 걸쳐 27일까지 이어진다.

◇이마트 '1+1' '상품권 증정'=광주 5개 이마트도 개점 26주년을 맞아 한 달 동안 주요 상품을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10년 전 전단보다 싼 가격'을 내건 만큼 큰 할인 폭을 내세웠다. 짜장라면(6입)은 3380원, 달걀 30구 2980원, 맥심 믹스커피(250입) 2만3800원, 고등어자반(700g) 1980원, '달링다운 와규 불고기'(호주산·100g)는 1980원 등 9300억원 상당 총 40여개 상품을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과일과 채소는 사전 물량 확보를 통해 가격을 크게 낮췄다. 단감 5㎏은 1만1000원에, 사과 3㎏은 5900원에 내놓고 포도(미국산·2.7㎏)는 1만2900원에 선보인다.

이밖에도 1+1, 가격할인,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마련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56ℓ 대용량 코끼리 장바구니'를 주고, 전단 행사 상품을 'SSG페이' 결제하면 신세계포인트를 20배 증정한다. 매주 주말 행사카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을 할인 받을 수 있다.

13일까지 대형가전을 행사 카드로 사면 최대 20만원을 할인 받고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혼밥·혼술족에 이어
이제는 '홈 스테이크'

이마트 매출 증가

집에서 구워먹는 '홈 스테이크'가 1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1일~11월6일 한우등심 스테이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증가했다. 밑간한 '시즈닝 스테이크' 매출도 10.1% 늘었다.

한우 등심 판매에서 스테이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10%에서 올해 27%로 2.7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는 '혼밥' '혼술족'에게 맞춘 '한끼 식사용'(150~400g) 스테이크를 내놓았다.

또 등심·안심·채끝 등 부위를 구이용(두께 1㎝ 미만)으로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위별 고기(두께 2~3.7㎝)를 썰어 '스테이크 전용 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존 스테이크보다 1.5배 두껍고 보관기관을 열흘 정도 늘린 '헤비 시즈닝 스테이크'도 출시했다.

이마트는 한우 설도 헤비 시즈닝 스테이크(200g)를 1만1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돼지고기 직거래 장터 운영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5일 수완동 광주유통센터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본부는 오는 15일까지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구이용 돼지고기를 20% 할인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김장 안해도 다양한 기능에 김치냉장고는 산다

과일·술·화장품 보관도

직접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김치냉장고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장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에서 출발한 김치냉장고가 이제 쌀과 과일, 술은 물론 화장품까지 보관하는 '세컨드 냉장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김치산업 동향에 따르면 직접 담근 김치의 소비량은 2014년 147만t에서 2017년 122만t으로 연평균 2.6%씩 감소했다.

반면 G마켓에서 김장철을 앞둔 최근 1주일(10월23일~29일)간 김치냉장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연합뉴스

쇼핑하고 친환경 장바구니 받으세요

광주신세계, 쓱데이 기간
선착순 900개 증정

신세계그룹 전사 차원의 할인전 '대한민국 쓱데이'(~11월10일) 기간 동안 ㈜광주신세계가 '친환경 장바구니'〈사진〉 증정 행사를 펼친다.

6일 광주신세계는 이달 1일부터 신세계 제휴카드로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신세계 친환경 장바구니'를 900개를 선착순 증정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장바구니는 가로 47㎝·세로 39㎝ 크기로, 페트병 3개를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장바구니이다. 친환경 장바구니는 매장 지하 1층 사은행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10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로 3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시 1만5000원·3만원·5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도 증정한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 2일 그룹 내 18개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지난해 같은 날 대비 2배 증가한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만 전년 같은 날 대비 38% 늘어난 156만명이 몰리는 등 모두 600만명이 행사를 이용했다고 신세계는 전했다.

SSG닷컴은 매출 163%, 고객 수 131% 증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마트몰 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